

아우나...형이나... 국내 중형 SUV '왕좌의 게임'



기아 '더 뉴 쏘렌토'

기아 '더 뉴 쏘렌토'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
신차 수준으로 디자인 변경
3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현대차 '디올 뉴 싼타페'

도심·아웃도어 라이프 최적화
테라스로 연결되는 넉넉한 실내
10일 사양·제원 등 온라인 공개



현대차 '디올 뉴 싼타페'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왕좌의 게임'이 예고된다.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싼타페의 디자인을 공개하자, 기아는 신차급 변화를 준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맞불을 냈다.

◇신차급 변화·1위 왕좌 수성 나선다=기아는 최근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4세대 쏘렌토는 2020년 출시 후 매년 국내에서 6만대 이상 판매되며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켜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만6000대 이상 판매되면서 국내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더 뉴 쏘렌토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니티드'를 반영해 신차 수준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

오픈잇 유니티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중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을 기반으로 미래지향

적인 세련미와 강인한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 외관과 첨단 기술 기반의 모던한 실내 디자인을 갖췄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전면부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패턴 모듈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주간주행등(DRL)을 조화롭게 배치해 첨단기술로 진보한 차세대 모빌리티의 세련된 첫인상을 연출했다.

측면부는 수직으로 배열한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램프가 캐릭터 라인을 따라 이어져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단단하고 정제된 느낌을 강조했다.

실내는 '경계가 없는 이어짐'을 주제로 수평적인 조형을 통해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12.3인치 크기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처럼 매끄럽게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돼 다양한 정보를 통일감 있게 보여준다.

디자인 특화 트림 그레이티는 전용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이 적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와 루프랙 등에 블랙 색상을 입히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전·후면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와 전용 가죽 시트로 강인함과 고급감을 한 층 높였다.

더 뉴 쏘렌토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시티스케이프 그린, 불캐니 샌드 브라운 등 3종을 추가한 5종의 외장 색상과 신규 색상 블랙·올리브 브라운을 포함한 내장 색상 3종을 운영한다.

기아는 더 뉴 쏘렌토의 가솔린 및 디젤 모델과 하이브리드 4WD 모델은 8월 중순에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인종이 완료된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계획이다.

◇5년 만에 풀체인지로 완전무장·1위 탈환 노린다=앞서 현대차는 중형 SUV '디올 뉴 싼타페'의 디자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싼타페는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모델이다.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1세대 싼타페의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우선 싼타페의 외관은 각진 형태의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긴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된 희귀한 분위기로 강한 존재감을 표현했다.

현대차는 싼타페에 엠블럼을 상징적인 형상으로 재해석한 H 형상의 디자인을 곳곳에 반영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디자인은 차량 전면과 후면에 있는 H 라이트다. 전면에는 헤드램프와 좌우 헤드램프를 수평으로 길게 연결하는 램프에 적용됐다. 후면에는 리어램프에 H 라이트를 반영해 전면과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싼타페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강조했다.

측면은 대형 테일게이트를 중심으로 공간에 의해 재정의된 독창적인 유형, 대담한 루프라인과 날카

롭게 디자인된 휠 아치, 길어진 전장과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 21인치 휠 등이 어우러져 견고한 느낌을 준다.

싼타페의 실내는 언제 어디서든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거주 공간을 자랑하며 수평과 수직 이미지를 강조한 레이아웃으로 외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싼타페에는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하는 테라스 콘셉트의 대형 테일게이트가 적용됐다.

싼타페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바닥 매트, 2열과 3열 시트백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적용했으며, 크래시 패드, 도어 트림 커버 등은 친환경 인조가죽을 사용해 제작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8월 10일 온라인을 통해 싼타페의 주요 사양, 제원 등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입 SUV '우리도 달린다'

벤츠, 럭셔리 중형 SUV GLC 3세대 완전 변경 모델 국내 인도

역동적 외관·뛰어난 주행 성능·안전 사양 탑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럭셔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C의 3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사진)의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GLC는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적으로 260만대가 판매되면서 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에서도 누적판매 2만5000여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더 뉴 GLC는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주행 성능,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 및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탑재돼 럭셔리 중형 SUV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뉴 GLC의 차체는 국내 인증 기준 이전 세대 대비 최대 55mm 길어져 강력한 느낌을 보여준다. 측면 디자인은 근육질의 휠 아치가 강조되면서도 매끄러운 디자인으로 이전 세대보다 0.02Cd 개선된 공기저항계수 0.29Cd를 기록했다.

실내는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함과 동시에 모던함과 스포티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다. 이전 세대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15mm 늘어나 공간이 여유로워졌고, 트렁크도 이전 대비 70ℓ 늘어나 2열 시트를 접을 시 최대 620ℓ까지 적재할 수 있다.

더 뉴 GLC 220d 4매틱과 더 뉴 GLC 300 4매틱에는 4기통 디젤, 가솔린 엔진에 48V 전기 시스템을 결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와 연동해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차량 전면부의 아래를 중앙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투명 보닛' 기능은 오프로드 모드 주행 시 전방 도로 상황 및 장애물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뉴 GLC 220d 4매틱과 더 뉴 GLC 300 4매틱 가격은 각각 7680만원, 8710만원이다.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및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토요타코리아, 7인승 SUV '하이랜더' 4세대 모델 판매 돌입

246마력 출력·복합연비 13.8km/ℓ

토요타코리아는 준대형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랜더' (사진) 4세대 모델을 국내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하이랜더는 RAV4 하이브리드(HEV)·풀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듀얼 부스트 HEV로 출시된 16세대 크라운에 이어 토요타코리아가 올해 내놓은 세 번째 전동화 모델이다.

하이랜더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2.5ℓ 자연 흡기 엔진으로 246마력의 출력과 복합연비 13.8km/ℓ를 달성했다. 세제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저공해자동차 2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이랜더는 TN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강성 차체, 최적의 서스펜션 조율을 통해 이전 모델 대비 승차감을 개선했다. 특히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주변 흡차음 설계로 실내 유입 소음을 줄였다.

하이랜더의 외관은 '강렬하고 여유로운'(Powerful Suave)을 콘셉트로 안정감 있는 차체 비율을 완성했다고 토요타코리아측은 설명했다.

실내는 모든 탑승객에게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3열의 시트를 계



단식으로 배치했고, 2·3열 시트를 평평하게 펼 수 있는 플랫 폴딩 기능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런 가성비비의 고성능은 없다

현대차, 부분변경 '아반떼 N' 출시...최대 출력 280마력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 브랜드 대표 모델인 아반떼 N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반떼 N' (사진)을 출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반떼 N은 지난 3월 출시된 '더 뉴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이다.

아반떼의 기본 디자인 테마를 바탕으로 확대된 전·후면 범퍼, 19인치 전용 휠, 블랙 엠블럼 등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를 적용했다.

동력 측면에서는 N 브랜드 전용 가솔린 2.0터보 플랫파워 엔진에 8단 습식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또는 6단 수동변속기를 탑재해 운전자 성향에 따라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파워 엔진은 약 5500rpm부터 최대 출력을 유지해 가속 구간에서 유리하다.

최고 출력 280마력, 최대 토크 4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고, 'N 그린 슈프트'(NGS)를 작동하면 터보 부스트압을 높여 최대 290마력까지 출력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밖에 안정적 코너링을 돕는 e-LSD(전자식 차동제한장치), 능동 가변 배기 시스템, 런치 컨트롤 등 고성능 특화 기능을 기본 적용해 운전의 즐거움을 높였다. 또 고강성 경량 차체,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8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각종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현대차는 일반형과 고성능 N 사이에 있는 N라인 모델도 함께 출시했다.

종전에는 가솔린 엔진에서만 N라인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하이브리드에서도 추가 운영해 다양한 파워트레인(동력계)에서 고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쉐보레 구호차량 달린다

31일 밝혔다.

쉐보레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쉐보레 콜로라도 23대를 긴급 구호 차량으로 제공했다고 지난

<쉐보레 제공>